

## 방통위, 국내 OTT 업계와 간담회 개최

- 해외진출 지원 등 국내 OTT 플랫폼 지원 방안 논의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5월 28일(화) 정부과천청사에서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이하 ‘OTT’) 4개사(티빙, 웨이브, 쿠팡플레이, 왓챠) 대표들과 간담회를 갖고,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다.

김홍일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내 OTT 서비스 성장은 우리나라 콘텐츠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며 “글로벌 기업에 비해 규모가 작은 국내 사업자들이 경영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양질의 콘텐츠 제작에 지속적으로 투자해온 점에 대해 감사를 표한다.”고 하였다.

참석 사업자들은 “어려운 시장 환경이지만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자 한다.”며 “방통위가 국내산업 보호 및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내 OTT 업계가 재정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글로벌 OTT의 공세에 대응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주길 요청드린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자들은 “방통위가 미디어 전반에 대한 규제체계 정비를 추진하는 경우 OTT에 대한 최소규제 최대진흥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 OTT 사업자의 해외진출 등에 대하여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홍일 위원장은 “OTT 산업은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콘텐츠 제작 역량의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한류 콘텐츠가 글로벌로 진출하는 주요 유통 창구가 되고 있다.”고 강조하며, “디지털 시대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방통위는 국내 OTT의 글로벌 네트워크 확보 및 해외진출 등에 대한 정책적 지원으로 OTT 산업 활성화에 적극 노력하겠으며,

미디어 통합법제는 최소규제 원칙하에 사업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합리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또한 “사업자들도 요금제 개편 등에 있어서 국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국내 OTT 산업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방송기반국 방송기반총괄과	책임자	과 장	곽진희 (02-2110-1260)
		담당자	서기관	박성철 (02-2110-1261)

